

“다이옥신 99% 차단” “광주 폐기물 유입 안돼”...신경전 치열

공론화 앞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토론회 가보니

공론화를 앞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진영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만들어진 SRF를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가동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줄소송이 잇따르면서 제때 SRF를 처리하지 못한 광주시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열병합발전소 관련 토론회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국난방공사), 나주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환경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나주시의회 SRF 열병합발전소 특별위원회(위원장 지차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과 해법', 'SRF 열병합발전소의 환경유해성과 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주시 임주호 에너지산업 과장은 “지난해 12월 시험가동을 끝으로 현재까지 SRF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중지된 상태”라며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통해 일괄 타결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진중용 한국난방공사 고객지원부장은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의 저감효율을 99.8%까지 낮출 수 있게 5가지 환경저감시설을 갖출 계획이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더욱 강화하고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2배 강화해 규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난방공사는 “혁신도시 주변에 산재한 축사 및 퇴비시설, 육가공 시설 등이 악취의 주범이고, SRF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국난방공사는 축사 상생상을 위한 지역사회와 약속으로 ▲국내최고 수준의 오염저

기관·시민 등 200여명 열기
난방공사 “배출 기준 대폭 강화”
범대위 “폐기물 처리 원칙 어겨”
가동중단 잇단 소송 해법 시급

감시설 유지 ▲오염물질 배출현황 공개 ▲환경영향평가 7년간 실시 ▲협의를 통한 주민참여방안 결정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 신상철 위원장은 “한국난방공사는 타지역 쓰레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예방원칙’, 오염물질을 발생 장소에서 처리하는 ‘근접원칙’, 오염원 유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오염자부담원칙’ 등 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최첨단시설로 안전하다고 홍보했던 광주상무소 각장의 경우 2010년 환경영향평가 결과 토양에서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폐쇄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전 공공기관 가족 황유진 씨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해 SRF 발전소 시험가동 기간에 아이들이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으로 고생을 했다”며 “나주지역 15~45세 가입 여성 중 40%가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유아도 9000여명에 이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12월에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2018년 5월 ‘가처분 결정이 없다. 또 한국난방공사는 지난해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운영손실 등으로 42억 58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열병합발전소가 동 관련 사용승인처분 이행’ 등을 요구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G20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 추진”...북미대화 교착 풀기

문대통령 27일부터 5박 8일

체코·아르헨·뉴질랜드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27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기간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

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27~28일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회담하고 동포 및 진출기업 대표를 격려한다”며 “이어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동포 간담회 및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 등을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과는 1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며 “문 대통령은 내달 2~4일에는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해 팻시 래디 총독 및

지신다 아던 총리와 만나고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도 추진한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미국 정부와의 추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정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달 1월에 한다고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

통령의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 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 개최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다면 이는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

‘판사 탄핵’ 공 받은 국회...민주·평화·정의당 환영, 한국·미래당 반대

홍영표 “국회서 적극 논의”

한국당 “삼권분립 훼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정의당 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탄핵소

추안 발의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 입장이어서 탄핵소추가 현실로 닥칠지는 현재로서는 난망하다는 분석이 많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전무하다.

일단 그동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면서도 법관 탄핵에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민주당은 법관대표회의의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탄핵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에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실무 준비 검토에 들어갔다.

의원 5명 전원이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결단과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법관 탄핵소추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화당의 입장은 사법농단 초기부터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사법부 내에서 의견이 모인 지금 더더욱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평화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법관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시점에서의 탄핵소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참석자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입점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블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